

박소현 “러브게임’ 20주년, 남자친구·남편 대신이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20년 일문일답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특집 방송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청취”

방송인 박소현이 ‘박소현의 러브게임’ 20주년을 맞아 “실감이 안 난다”며 “저한테는 라디오가 남자친구, 남편 대신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소현은 14일 오후 6시에 SBS 파워FM ‘박소현의 러브게임’ 20주년을 맞아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기념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박소현은 이날 소속사 싸이더스HQ를 통해 밝힌 일문일답에서 “어릴 때 10년 정도는 꿈을 꿔던 것 같다”며 “벌써 20주년이라고 하니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라디오를 진행하신 DJ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10년 정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20년까지는 상상을 해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난다”며 “오늘 공개방송을 하면 조금 실감이 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소현은 최근 결혼 발표로 청취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20주년을 맞아 라디오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

박소현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다”

고 웃으며 “청취자들의 연애, 결혼 사연을 읽어드리면 ‘언니는 라디오가 있잖아요’라는 이야기가 많이 해주셨다. 정말 저한테는 라디오가 남자친구, 남편 대신이었던 것 같다. 10년 정도 사귀고 결혼한 느낌일까. 블랙데이에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기념 방송을 하게 돼서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박소현의 결혼식 축가를 약속했던 가수 폴킴, 노을, 에일리는 직접 출연해 축하도 부른다. 박소현은 “노을은 10년 전부터 잡아놨다. 그들도 이런 결혼식에서 축하를 부를 거라곤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정말 결혼하면) 다시 와주지 않을까. 축하를 부탁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소절씩밖에 못 부르게 될 수도 있다”고 웃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 박소현은 “아플 때인 것 같다. 감기도 안 걸리게 노력하고, 안 다치려고 노력한다”며 “목이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래서 목 관리를 위해 따뜻한 물을 많이 마

시고 평소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라디오 시간에 맞춰서 늘 3시~4시부터는 물을 많이 마신다. 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가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또 노래방은 가지 않는다. 하루 중 라디오 하는 시간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이 넘는 코너인 ‘러브게임의 법칙’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도 했다.

그는 “헤어졌다는 사연들이 있는데 몇 년 후에 ‘그때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살고 있어요’라고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다. 헤어진 애인이 방송을 직접 듣거나 지인이 방송을 듣고 이야기해줘서 다시 연락하게 된 계기로 다시 만나서 해피엔딩이 됐다. 그런 분들 사연을 보면 너무 보람된다”고 미소 지었다.

박소현은 지난 1998년 시작한 SBS ‘세상에 이런 일이’도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또 MBC에브리원 예능 ‘비디오스타’도 2016년부터 6년째 MC를 맡고 있다. 박소현은 “좋은 사람들 덕분에”이라고 장수 프로그램을 맡는 비결을 꼽았다.

그는 “임성훈 선배님을 20대에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한다. 라디오 스태프들도 정감 있고 의리 있고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정말 인복이 좋다. ‘비디오스타’도 마찬가지다. MC 4명의 합이 너무 좋다”며 “이제 다 가족 같은 사이다.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다.

어느새 50대로 접어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동안 외모’로 화제다. 박소현은 “특별한 관리 방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독립을 하지 않고 집밥을 계속 먹고 있다는 게 비결일 수 있다”며 “집밥이 좋다고 생각해서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 발레를 할 때부터 스트레칭을 빼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함께해온 청취자들에게 애정 어린 한마디도 남겼다.

박소현은 “저의 20대, 30대, 40대를 같이 해주시고 매일 소통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남자친구나 남편 대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는 청취자분들 덕분에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오래오래 라디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수도권 107.7MHz에서 방송된다.

뉴스

조작논란 ‘아내의 맛’ 시즌 종영... “잠깐의 휴식기”



첫 방송 이후 약 3년 만에 종영

조작 논란으로 대중의 맛매를 맞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아내의 맛’이 13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종료했다. 2018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아내의 맛’에서 출연진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MC 이휘재는 “매주 화요일 밤 다양한 부부와 가족의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을 전해드렸던 ‘아내의 맛’이 아쉽게도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영란은 “가족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너무 아쉽고 슬프다. 저희가 동료라기보다 가족 같다”고 속상해했고, 박명수는 “잠깐의 휴식기를 갖고 더욱 더 재밌고 멋진 분들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다.

홍현희는 “결혼하고 처음 시작했다.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도 여기서 갔다.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맛’이 친정 같다. 시즌2엔 3명이 될 수도 있다”고 출산 계획을 내비쳤다.

제작진은 “그동안 아내의 맛을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방송을 마쳤다.

앞서 누리꾼은 ‘아내의 맛’ 합소원 출연 회차와 관련해 수차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던 제작진 측은 결국 ‘시즌 종영’을 선언했다.

다만 ‘폐지’가 아닌 ‘시즌 종영’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여지를 남겨둔 탓에 비난 여론은 여전히 잔존한다.

장도연, ‘체인지 데이즈’ 공감형 MC 발탁

“연애 통한 설렘·행복 리셋”

차세대 국민MC로 손꼽히는 장도연이 카카오투비 오리지널 ‘체인지 데이즈’의 진행을 맡는다.

장도연은 그동안 다양한 예능 콘텐츠를 통해 옆집 언니, 친구 같은 매력을 선보여왔다. ‘체인지 데이즈’에서도 때로는 출연 커플들에, 때로는 시청자 입장에 몰입해 그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공감형 MC’로서 활약을 예고했다.

장도연은 남의 연애사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현역 싱글’로서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도연은 “단순히 두근거리는 로맨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인들이 각자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연애를 통한 설렘과 행복을 리셋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가져본다는 참신한 콘셉트에 흥미를 느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체인지 데이즈’는 장기간의 연애, 일, 성격과 성향, 연애 방식의 차이 등 저마다의 이



유료 설렘을 잃은 2030 커플들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찾아나서는 커플 리셋 프로젝트다.

김민재·박규영, ‘달리와 감자탕’으로 뭉친다...하반기 방송

대세 청춘 배우 김민재와 박규영이 로맨틱 코미디 ‘달리와 감자탕’에서 뭉친다.

14일 KBS 2TV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 측은 “김민재와 박규영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하반기 방송할 예정이다.

‘달리와 감자탕’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호감을 느꼈던 돈만 있는 일자무식 졸부와 몰락한 미술관을 살리려는 명문가의 딸이 재우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민재는 남자 주인공 진무학으로 분한다. 자그마한 감자탕집에서 글로벌 외식기업으로 성장한 돈돈 F&B의 차남이다. 무지, 무식, 무학 등 ‘3無(무)의 소유자’이지만 장사수단과 돈 냄새 맡는 감각은 특출한 캐릭터다.

박규영이 맡는 김달리는 미술관 직원 연구원이다. 명망 높은 청송가의 무남독녀이



자 7개 국어에 능통하고 인성까지 완벽한 인물.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당장 한 끼 식사 해결도 어려운 ‘생활 무지렁이’ 캐릭터다. ‘단, 하나의 사람’, ‘동네번호사 조들



호, ‘힐러’, ‘제빵왕 김탁구’의 이정섭 감독과 ‘어느 멋진 날’, ‘마녀의 사랑’ 손은혜·박세은 작 작품이다. 최근 대본 리딩을 마쳤으며 이달 중 첫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키즈, 일본 첫 싱글 ‘톱’ 골드디스크 인증

음반 누적 출하량 10만 장 이상을 기록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일본 첫 싱글 ‘톱(TOP)’이 골드 디스크 인증을 획득했다.

14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해 6월 3일 일본에서 발표한 ‘톱’이 최근 음반 누적 출하량 1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골드 디스크 인증을 받았다. 스트레이 키즈가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받은 첫 인증이다.

‘톱’에는 네이버웹툰 애니메이션 ‘신의 탑’의

오프닝 곡인 ‘톱과 엔딩 주제곡 ‘슬럼프’의 일본어 버전이 담겼다. 팀 내 프로듀싱 그룹 스텔라(STRACHA)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스트레이키즈는 해당 앨범으로 발매 첫 주에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최대 레코드업인 타워 레코드의 전 점포 종합 싱글 차트 최정상에 올랐다.

한편 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15일 방송되는 ‘킹덤’ 3회에서 1차 경연을 펼친다.